

Vol.51

JUNE
2020

06

사람과 사람,
HRD는 '연결'이다

| HRD 6월의 이슈 |

- 고용보험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일자리포털 워크넷,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 시범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6조 4,337억 원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47.6만 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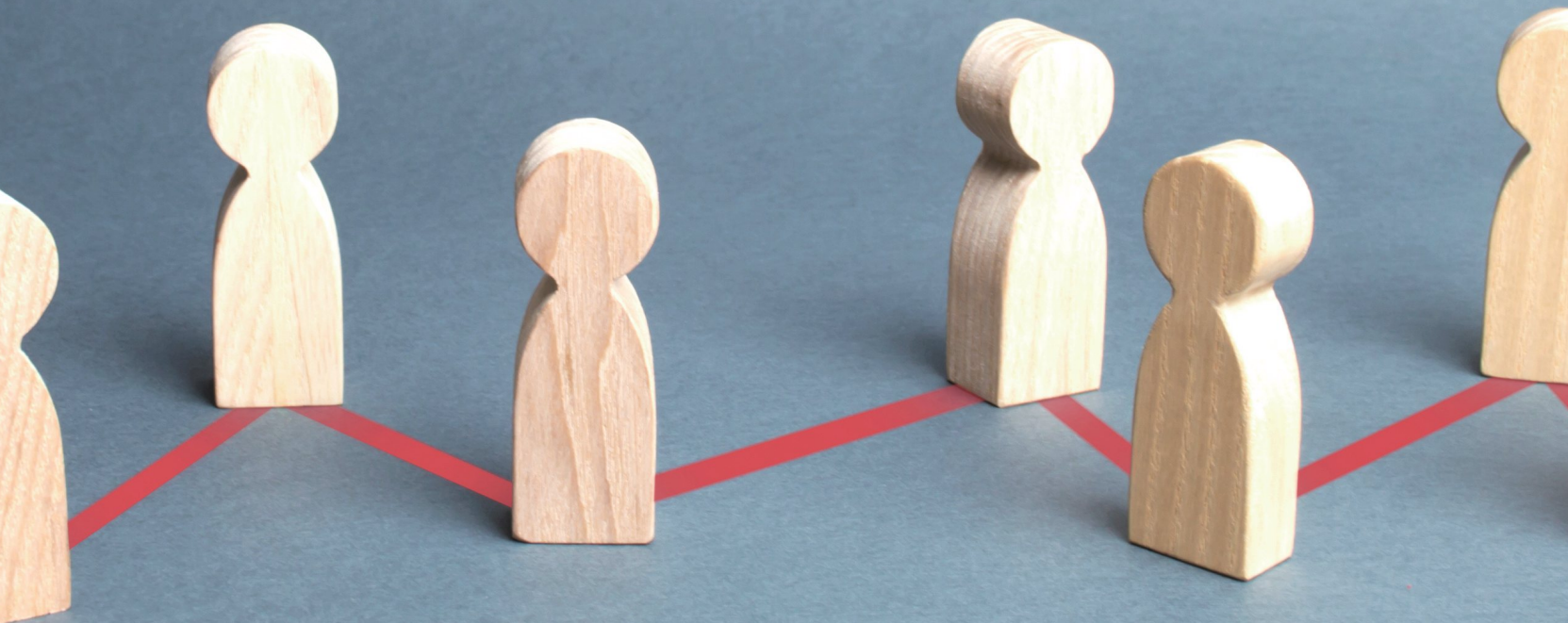
일시휴직자 전년동월대비

148.5만 명 감소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중요성을 잠시라도 잊지 말라.

_낙부이치치



Contents



cover story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통권 제51호

발행일 2020년 6월 18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전화번호 052-714-8322

구독신청 및 문의 1999sss@hrdkorea.or.kr

디자인·인쇄 디자인글꼴

정책동향

- 04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 0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08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08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09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발표

현장동향

- 10 고용노동부, 신기술 분야 대표 기업·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 11 일자리포털 위크넷,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서비스 시범 운영
- 11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취업아카데미 우수 참여후기 사례집 제작
- 12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 발간
- 12 올해 3월·4월·5월·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 13 「2020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운영
- 13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의 미래지향적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창직 프로그램’ 개발
- 14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발표
- 15 국가기술자격 취득 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 시작
- 15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 16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 17 한국기술교육대 STEP,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지원에 앞장
- 1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정·고시

HRD통계

- 18 2020년 4월 고용동향

연구동향

- 20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 20 해외취업 20년간 사업수행 성과분석을 통한 발전전략 연구
- 21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정망: 플랫폼 노동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21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현장 직무 변화

기관동향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

6조 4,337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2020년 6월 3일, 고용노동부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조 4,337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급휴직 실시 전 시행해야 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요건(기존 → 개선) (특별고용지원업종) 1개월 → 즉시, (일반업종) 3개월 이상 → 1개월

• 예비비(9,400억 원)로 6.1부터 접수 후 2주일 내 1차분 (100만 원) 지급 → 3차 추경 통과 후 2차분(50만 원)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1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 지원인원 확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최대 월 50만 원 × 3개월) 신설 등 고용유지 지원 강화

본 예산 351억 원, 22만 명 → 현 반영 +7,612억 원, +47.9만 명 → 추경안 +8,500억 원, +57.8만 명

2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월 50만 원 × 3개월)’ 지급 <5,700억 원>

3 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

- 공공: 비대면·디지털일자리 산업안전·사회적경제 분야 빅데이터 구축

* 산업안전 제조사업장 30만 개소 안전보건정보 실태조사 및 결과 전산화(302억 원, 2,250명)

* 사회적경제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서비스·조직현황, 지역현안 등) 조사 및 DB화(112억 원, 1,700명)

- 민간: 청년일자리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을 지원하고(10만 명), 중소·중견기업에 채용 보조금 지급(5만 명)

* 청년디지털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 지원 (4,678억 원, 5만 명)

* 청년일경험 청년을 단기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80만 원 및 관리비<인건비의 10%>) 지원 (2,352억 원, 5만 명)

* 채용보조금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채용 시 채용장려금 추가 지원
기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월 30~60만 원 → 채용보조금 6개월 이상, 월 80~100만 원

4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규모 확대

본 예산 9조 5,158억 원, 136.7만 명 → 추경안 +3조 3,938억 원, +49만 명

- 직업훈련 실업자·무급휴직자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

* 직업훈련 본 예산 7,803억 원, 46.4만 명 → 현 반영 +376억 원, +4만 명 → 추경안 +1,533억 원, +12만 명

* 생계비용자 본 예산 317억 원, 0.7만 명 → 현 반영 +111억 원, +0.1만 명 → 추경안 +963억 원, +1.8만 명

• 14개 관계부처가 21개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62개 인력양성 사업을 협업예산으로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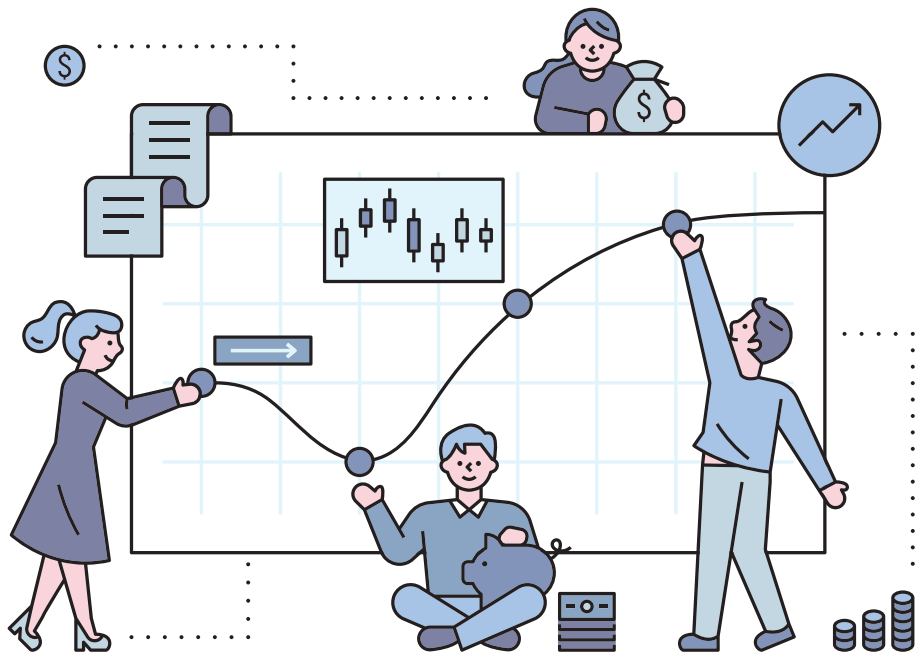
* 우수훈련기관 585곳에 민간 LMS 임대료(6개월분, 1,800만 원)의 일부(50%) 지원

2.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

- ① 인력양성 AI 대학원(8개소) 등 주요대학과 신기술 대표 기업이 디지털·신기술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 지원(+68억 원)
- ② 원격훈련 인프라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15억 원), 민간 LMS(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 임대 지원(+53억 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

3. 화재·폭발 등 고위험현장 사고예방 강화

- ① 사고예방 시설 지원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용접작업 불연포 등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712억 원, +2.2만 개소)
 - * 유증기환기팬 300억 원, 3천 개소 가연성 가스 감지기 120억 원, 3천 개소
 - 용접작업불연포비상유도선 80억 원, 8천 개소 폭염대비 이동식에어컨 200억 원, 8천 개소
 - * 패트롤카 운영 확대 +12억 원 (27 → 108대, +81대)
- ② 위험현장 밀착 관리 소규모 건설현장·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 대상으로 점검·안전 기술 지원 등 밀착 관리 강화(+72억 원)
 - *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31억 원, +200명(61 → 92억 원, 200 → 400명)
 - 소규모사업장 안전기술지원 +41억 원, +2.8만 회(34.3 → 37.1만 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 회의 통과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 고용보험 당연적용으로 예술인의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 강화 등



» 2020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

’20.5.20. 국회 본 회의에서 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②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및 ③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시행: ’21.1.1.)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로서,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지원내용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명문화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을 제공하도록 했다.

②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규정

- 구직촉진수당(50만 원×최대 6개월)의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했다.

③ 구직활동의무 부과 등

-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는다.
 ·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의 결합을 통하여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동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취약계층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

**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

***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공포 후 6개월)

1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된다.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며,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2 예술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보험료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들의 활동 특성을 감안하여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활동 준비기간 등으로 장기간 실직 상태가 빈번한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3차 고용정책 심의회' 개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심의·의결
-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추진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고용정책' 논의



» 2020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1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추진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고용정책」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율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께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둔화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2020년 6월 2일, 고용노동부

정부는 6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20.4.22.)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근로자의 휴업 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강화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 신설,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발표

- 하반기 코로나19 대응한 탄력적 일자리사업 운영
- 사업간 연계·시너지 향상과 자치단체 사업 성과제고도 추진

» 2020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효율화방안은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20.5.21.)를 거쳐 제27차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에 대응한 하반기 탄력적 운영 추진

- ① 일자리사업이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위기 상황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 추진
 - **직접일자리** 중단사업 정상운영 복귀, 활용 가능분야 확대, 참여요건 완화, 기타 운영절차 간소화 등 원활한 운영 추진
 - **직업훈련** 훈련물량 확대(+12만 명), 특고·무급휴직 훈련지원 확대, 비대면 훈련 추진
 - **고용서비스** 온라인 구인구직 매칭, 원격상담 메신저 구축 등 비대면 고용서비스 활성화
- ② 아울러,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발굴·추진하여 실직·폐업 등의 어려움 신속히 대처

2. 일자리사업간 연계지원 내실화 등

- ① 일자리사업이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사업유형별 연계 서비스 보완
- ②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성과 향상방안 마련·추진

3. 일자리사업 운영 시스템 보완

- ① 일자리사업의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일몰제·최소성과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 효과성 제고
 - **일몰제 차질없는 운영** 성과평가 D등급은 관찰대상으로 분류, 3년간 모니터링 → 3년 차에 다시 D등급을 받고, 그 이전 2년간 C 또는 D등급을 받은 경우 일몰 판단
 - **최소성과기준 적용** 핵심지표 현황을 주기적으로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 유도
 - **평가인프라 확충** 성과평가 시스템 전산화 추진 등
- ② 일자리사업 운영위원회 신설을 통한 전문성 보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기능 및 사업간 비중 등 중장기 일자리사업 운영 개선 추진

4. 사업유형별 개선방안

- ◆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유사·중복 및 저성과 사업 조정, 국민 체감도 제고,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유형별 개선방안 추진
 - **직접일자리** 저성과사업 재설계·감액, 신규·변경사업 유사·중복 방지, 운영지침 재정비
 - **직업훈련** 신기술 훈련사업 평가체계로 편입, 훈련 품질·성과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 **고용서비스** 자치단체 고용서비스 표준안 마련 및 평가 도입,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무급휴직 실시 전 시행해야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요건(기준→개선) (특별고용지원업종) 1개월 → 즉시, (일반업종) 3개월 이상 → 1개월

• 직접일자리·직업훈련 종료 시 구직알선 등 공공고용 서비스로의 연계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신기술분야대표 기업·대학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 2020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26일, 서울 소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삼성전자·KT, POSTECH·연세대·한양대 AI대학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인력양성 과정을 진행 중인 우수사례를 공유(KT, 서울대, 모두의연구소, 패스트 캠퍼스 등)하는 등 정부와 대학·기업 등이 함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AI 등의 분야에서 핵심 실무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운영 중인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등 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우수사례로 제시된 모델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대학,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인력양성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모델 확대 방안 예시】

<p>기업주도 청년인재 양성 (예: 삼성청년 SW아카데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청년 대상 실무형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 특징 신기술 분야 대기업 등이 프로젝트 기반 훈련 실시 ▪ 확산 삼성전자 → 신기술 분야 리딩 기업 중심으로 확대
<p>현장수요 반영 프로그램 설계 (예: 모두의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신기술 분야가 부족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편 ▪ 특징 기업이 프로젝트 제시, 자기주도 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훈련 실시, 현업 전문가가 교강사로 참여 ▪ 확산 모두의연구소 → 우수훈련기관으로 확대
<p>대·중소 상생형 모델 (예: 산학연 AI 원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대기업 및 협력사 재직자 대상 실무현장 인재 양성 ▪ 특징 대기업(대학)-협력사 연계한 대·중소 상생형 모델, 고속훈련을 위한 인프라 및 훈련비 지원 ▪ 확산 산학연 AI 원팀 → 신기술 분야 리딩 기업 중심으로 확대
<p>우수대학 주도모델 (예: 서울대 빅데이터 아카데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비전공 청년 대상 실무형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 특징 커리큘럼에 기업현장 수요 반영, AI대학원 등 상위수준 진학 연계, 고속훈련 강사 활용 등을 위한 지원체계 유연화 ▪ 확산 서울대 → 전체 AI대학원 및 타분야로 확대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역량있는 기업, 대학, 교육훈련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인증평가 및 실적평가 등)하는 등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 분야 디지털 인재가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훈련과정 설계·운영 등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체계도 유연화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인력양성 지원은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적 대전환의 기회”라며,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기업, 대학과 함께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 인재양성 훈련 프로그램을 「기업과 훈련생」 등을 중심에 두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일자리포털 워크넷,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서비스 시범 운영

▶▶ 2020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일자리포털 워크넷의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 ‘더워크 에이아이’(The Work AI)를 시범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등은 작년 1월부터 사용자가 이력서만 등록하면 고용보험 수혜이력, 훈련정보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추천해주는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더워크 에이아이)는 기존 연산방식(알고리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기업에서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더워크 에이아이)는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의 이력서와 구인 기업의 채용공고에 적혀 있는 ▲직무핵심어 ▲구직자 속성 ▲채용공고 요구사항 ▲온라인 행동유형을 분석해서 직무와 구인조건에 적합한 인재와 일자리를 연결한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더워크 에이아이)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 기반 고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라며, “더 나은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의 반응을 면밀하게 살펴 보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취업아카데미 우수 참여후기 사례집 제작

▶▶ 2020년 6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6월 8일(월)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후기 공모전 수상작을 사례집으로 엮어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였다.

이번 사례집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 과정 및 취업성공 스토리를 공모해 우수사례를 선정한 것으로, 홈페이지 공개와 함께 책자 형태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에 선정된 8개 작품 출품자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과 총 상금 300만 원이 전달되었으며,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언택트(Untact)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이번 사례집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취업아카데미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청년취업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
(myjobacademy.kr)

** 최우수작 1명(100만 원), 우수작 2명(50만 원),
장려작 5명(20만 원)

*** 시상 판넬 및 상장 등 수상자 자택으로 발송, 판넬에
수상소감을 작성 및 사진촬영하여 회신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해외취업 박람회(2019년 상하반기 전체 기준, 구인기업 284개사, 구직자 5,278명 참여)

「2020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운영

» 2020년 5월 14일, 고용노동부·KOTRA·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5월 14일(목)부터 22일(금)까지 7일간 『2020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Online Job Fair Week 2020)을 운영하였다. 그동안 글로벌자리대전¹을 대면(對面) 방식으로 개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국가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행사 전반을 비접촉(Untact)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화상면접 주간에는 일본·뉴질랜드·캐나다 등 7개국, 61개사가 참여하며, 해외기업의 채용 희망 인원은 총 242명이다. 일본이 50개사로 가장 큰 비중(82%)을 차지하며, 북미 5개사, 오세아니아 4개사, 독일·중국 각 1개사가 참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IT·정보업(31%), 제조업(21%), 전문 서비스업(13%), 도·소매업(12%) 순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취업에 난관도 많고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진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번 화상면접 주간을 통해 해외취업 기회와 생생한 정보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의 미래지향적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창직 프로그램' 개발

» 2020년 5월 21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직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창직'활동을 경험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창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본 프로그램은 창직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아이디어를 직업화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직에 필요한 기본을 익히는 '창직 워밍업', 창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제 계획을 수립해 보는 '창직 셋팅업', 그리고 실제 본인의 관심 분야를 창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해보는 '창직 러닝업' 등 총 3개 모듈, 15차시로 구성돼 있다.

최영순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장은 “전통적인 직업에서의 대량의 일자리 창출이 점차 어려워지는 요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청년층도 늘어나고 있다”며, “그동안 창업과 달리 창직을 구체화해보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은 없었기 때문에 대학 및 관련기관에서 청년층의 다양한 진로탐색과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본 프로그램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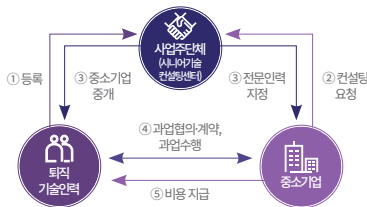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발표

» 2020년 5월 15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합동

초고령화 이행,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 위기 등 상황 하에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은 지속 확대가 예상되어, 이들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는 그간 각 부처별로 운영되어 온 퇴직 전문인력 활용사업을 종합,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자문 및 숙련전수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활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산업분야별 특화된 퇴직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



1. 중소기업 컨설팅

- 업종별·기업별 수요분야에 따른 전문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직 전문인력을 기술자문 전문인력으로 육성 → 적합 중소기업으로 매칭 → 사후 피드백을 통해 관리하는 운영모델을 개발, 추진

2. 중소기업 재취업 연계

- 금융분야 및 공공기관 등은 퇴직 이전 단계부터 역량있는 근로자를 중소기업 자문·업무지원에 연계하고, 퇴직 후로는 재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

2. 차세대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1. 교·강사 및 멘토

- 전문성을 활용한 직업훈련교사(매년 500명, 한기대), 연구실 안전전문강사 등으로 양성할 계획

2. 숙련전수 체계화

-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실업으로 인한 여파가 인적자본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숙련기술자의 기술노하우를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추진

3. 신기술 접목·활용

- 퇴직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VR 등 ICT기술 융합 현장작업 매뉴얼화 하는 한편, AI기반 수집·가공 하는 시스템을 연구할 계획

3. 퇴직 전문인력 활용인프라 구축

◆ 고용서비스 지원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

-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는 단계적으로 퇴직 전문인력-중소기업 매칭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21년 시범실시)이며, 대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제도를 활용, 재취업알선·사회공헌이나 숙련전수 연계 활성화를 추진



국가기술자격 취득 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 시작

▶▶ 2020년 5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5월 29일(금)부터 공단 큐넷(Q-net)자격정보와 외교부 아포스티유(Apostille) 연계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 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포스티유란, 발급국가 문서가 해외(타국)에서 사용될 때 공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협약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가 부착된 공문서는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도 공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번 서비스 시작으로 아포스티유에 가입된 118개국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 확인이 필요한 고객은 외교부와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발급 신청은 e-Apostille 홈페이지(apostille.go.kr)에서 가능하며, 해외취업자 등 아포스티유 인증서가 필요한 고객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시작으로 118개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외 연계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 2020년 6월 1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면허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추가한다.

기존 일자리포털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경력사항 ▲직업훈련 이수이력 ▲해외경험 정보를 불러와 자동으로 입력 할 수 있었다. 이번 기능 개선으로 국가기술자격 정보도 자동으로 추가된다.

【 이력서 자동입력 제공항목 】

자동 입력 항목	서비스 내용
경력사항	고용보험 가입이력
직업훈련 이수이력	HRD-Net(직업훈련) 이수내역
해외경험	월드잡플러스에 등록된 해외일경험정보
국가기술자격면허	Q-net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정보

향후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구직자의 이력서 작성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누리집 주소 <https://covid19.ei.go.kr> (컴퓨터, 모바일 접속 가능)
- ** '20.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하여 월 50만 원×3개월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지원 내역 150만원 (’20.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 3개월)

지원 대상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가입자
- 2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소득형 자영업자(연 매출 5억 원 이상) 중 영세 영세(1인 영세) 영세(1인 영세) 영세(1인 영세)
- 3 무급휴직근로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 *신, 영세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5억 원 이상) 중 영세 영세(1인 영세) 영세(1인 영세) 영세(1인 영세)

지원 구간

- 1구간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구간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 원 초과~10억 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

신청 기간 / 방법 신청기간: 6월 1일 ~ 7월 20일, 신청일 이후 2주 내 500만 원, 7월 휴가(연차) 사용 후 500만 원 지급,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PC, 모바일), <https://covid19.ei.go.kr>

관련 문의 : 1899-416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 2020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 특고·프리랜서		
-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 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자격요건 소득요건(1), (2) 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구분	소득요건(1), (2) 중 하나 충족	소득감소요건
1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	50% 이상 감소
2 영세 자영업자		
-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자영업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자격요건 소득요건(1)~(3) 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구분	소득요건(1)~(3) 중 하나 충족	소득감소요건
1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이하 ② 신청인 개인 연매출('19년) 1.5억 원 이하 ③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② 신청인 개인 연매출('19년) 1.5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③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	50% 이상 감소
3 영세 자영업자		
-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자격요건 소득요건(1), (2) 중 하나 충족과 무급휴직일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구분	소득요건(1)~(3) 중 하나 충족	소득감소요건
1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한국기술교육대 STEP, 실업급여 수급자대상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지원에 앞장

» 2020년 6월 4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이성기)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임경화)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온라인 취업 특강 프로그램으로 STEP(step.go.kr)에 탑재된 NCS 직업기초능력 분야의 “대인관계능력” 콘텐츠를 6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한다. 기존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구직활동 1건당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하였으나, 지침 개편에 따른 실업인정 방식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구직활동 외에 취업특강 프로그램 1회 수강 시에도 재취업활동 1회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STEP(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시 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콘텐츠를 수강하면,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임경화 원장은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이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실업자의 전공심화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질 높은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장고시

» 2020년 6월 11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신규 개발한 20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이미 개발된 NCS 중에 개선 작업을 완료한 138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6.12.(금)자로 확장·고시했다.

【개발·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20개 목록】

구 분	연관 NCS
스마트시티	지능형교통체계(ITS) 기획 및 설계, 지능형교통체계(ITS) 개발 및 구축,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 및 유지 관리
스마트제조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시스템 설치, 3D프린팅 소재 개발, 스마트팜 계측
바이오	유전자변형
그린에너지	수소연료전지제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IoT시스템연동, 소셜미디어방송서비스, 커넥티드카콘텐츠서비스
데이터산업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구축
인공지능	인공지능모델링, 라이다(LiDAR)기기개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재료개발
정보보호	블록체인서비스 기획, 개인정보보호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환경	상수관로 시설 운영 관리, 하수관로 시설 운영 관리

이번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서비스기획 등 신규 NCS 개발로, 교육훈련 현장에서는 산업 변화를 반영한 실무 중심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자격 신설 및 훈련과정 개설도 가능해졌고, 또한 기업에서는 실무형 인재 채용 및 직무중심 인사 관리 기준으로 활용되어 기업의 인적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에 추가로 개발 고시된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공장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신기술 분야의 자격, 교육훈련에 활용하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2020년 4월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2020



주요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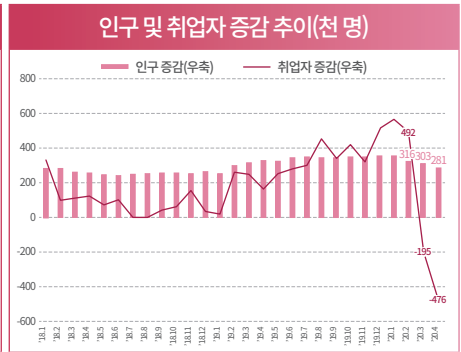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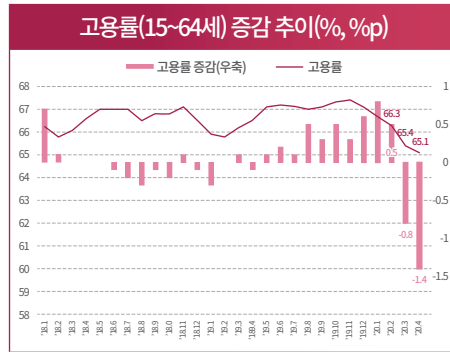
- ❖ 4월 취업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서비스업 고용 둔화가 확대되고, 코로나19 영향이 제조업 등에도 나타나며 전년동월대비 47.6만 명 감소
- ❖ 고용률은 15세 이상(△1.4%p)과 15~64세(△1.4%p)에서 모두 하락, 실업률(△0.2%p)과 경제활동참가율(△1.6%p)도 동반 하락
- ❖ 상용직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고용의 질 개선세도 둔화되는 모습

취업자 및 실업자

4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7.6만 명 감소

-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47.6만 명 감소하며 지난 3월(△19.5만 명)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

*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 명): (19.12)51.6 (20.1)56.8 (2)49.2 (3)△19.5 (4)△47.6



◇ 제조업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폭 확대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19.12)△1.5 (20.1)0.8 (2)3.4 (3)△2.3 (4)△4.4

◇ 건설업 입주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감소 지속

* 건설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19.12)△2.8 (20.1)0.5 (2)△1.0 (3)△2.0 (4)△5.9

◇ 서비스업 대면서비스업 충격이 확대되며 감소폭 확대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19.12)50.8 (20.1)46.8 (2)38.2 (3)△29.4 (4)△44.4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큰 폭 감소 지속

* 外관광객(만 명, 월평균): (19.12)145.7 (20.1)127.3 (2)68.5 (3)8.3 (전년동월비 △145.3만)

* 숙박음식 취업자(전년비, 만 명): (19.12)10.0 (20.1)8.6 (2)1.4 (3)△10.9 (4)△21.2

* 도소매 취업자(전년비, 만 명): (19.12)△9.4 (20.1)△9.4 (2)△10.6 (3)△16.8 (4)△12.3

- 개학 연기·학원 휴업 등으로 교육서비스업 감소폭 확대

* 교육 취업자(전년비, 만 명): (19.12)2.3 (20.1)0.7 (2)△1.0 (3)△10.0 (4)△13.0

- 예술스포츠여가업(+0.9 → +1.1만)은 증가 유지, 운수창고업(+7.1 → +3.4만), 시설관리업(+2.0 → +1.7만)은 증가폭 축소

채용일정 연기, 대면접촉 기피 등으로 구직활동 자체가 위축되면서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3만 명 감소한 117.2만 명 기록

* 실업자(만 명): (19.9)88.4 (10)86.4 (11)86.6 (12)94.2 (20.1)115.3 (2)115.3 (3)118.0 (4)117.2

- 전년비 증감(만 명): △14.0 △10.8 △4.3 △0.3 △7.1 △15.0 △1.7 △7.3

▪ 실업자가 감소하면서 실업률도 0.2%p 하락(4.2%)

* 실업률('19.4 → '20.4, %): 4.4 → 4.2 (△0.2%p)

4월 일시휴직자는 148.5만 명으로 두달 연속 100만 명 상회

* 일시휴직자(만 명): ('19.12)30.7 ('20.1)54.6 (2)61.8 (3)160.7 (4)148.5

청년(15~29세) 고용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청년인구 감소, 대면 서비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 둔화 등으로 큰 폭 감소

* 청년층 인구(전년비, 만 명): ('19.12)△8.7 ('20.1)△8.8 (2)△11.5 (3)△12.8 (4)△14.9

*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 명): ('19.12)6.9 ('20.1)6.5 (2)△4.9 (3)△22.9 (4)△24.5

◇ 청년층 고용률은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큰 폭 하락(△2.0%p), 실업률은 하락(△2.2%p)하였으나, 확장실업률은 큰 폭 상승(+1.4%p)

* 청년고용률(%): ('19.4)42.9 → ('20.4)40.9(△2.0%p)

청년실업률(%): ('19.4)11.5 → ('20.4)9.3(△2.2%p)

청년 확장실업률('19.4 → '20.4, %): 25.2 → 26.6(1.4%p) <통계발표 이래 ('15년) 최고>

평가 및 대응

4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시장의 둔화폭이 확대되는 모습

◇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47.6만 명 감소하며 지난 3월 (△19.5만 명)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

* 취업자 증가(전년비, 만 명): ('19.12)51.6 ('20.1)56.8 (2)49.2 (3)△19.5 (4)△47.6

- 중사상 지위별로는 지난 3월 크게 감소한 임시·일용직 고용이 추가 약화되었으며, 상용직 증가폭도 둔화

* 지위별 취업자 증감('20.3 → 4월, 전년비, 만 명) : (상용)45.9 → 40.0 (임시)△42.0 → △58.7 (일용) △17.3 → △19.5 (고용有자영업)△19.5 → △17.9 (고용無자영업)12.4 → 10.7

- 업종별로는 대면 서비스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건설업에도 부정적 영향 가시화

* 업종별 취업자 증감('20.3 → 4월, 전년비, 만 명) : (제조)△2.3 → △4.4 (건설)△2.0 → △5.9 (서비스)△29.4 → △44.4 [(숙박음식)△10.9 → △21.2 (도소매)△16.8 → △12.3 (교육)△10.0 → △13.0]

◇ 또한 일시휴직자가 113.0만 명 증가한 148.5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역대 최대규모였던 3월(160.7만 명)보다 소폭 감소

* 대규모 일시휴직자 증가는 우리 고용안전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 다만 고용부진 지속 시 실업자 또는 비경활인구 확대 우려

취업자가 두 달 연속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 19에 따른 불확실성도 큰 상황

◇ 정부는 고용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고용시장의 어려움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

- 지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추진·점검

*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 또한 3차 추경안을 면밀히 준비, 고용 시장 충격으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 한국개발연구원, 2020년 5월

💡 한요섭

주요내용

-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로 인해 민간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하였고, 이러한 효과는 대규모 내지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 집중됨.
- 제도변화 전후의 고용변화를 각 사업체 단위에서 분석한 결과, 고령층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가 1명 많을 경우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
- 특히 제도 변화 당시 100인 이상이었거나 기존 정년이 55세 내지 그 이하였던 사업체에서 고령층 고용 증가폭과 청년층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는 정년연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해외취업 20년간 사업수행 성과분석을 통한 발전전략 연구

▶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5월

💡 (사)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목적

- 해외취업 인력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취득과 국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부족 상황에서 해외취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고 해외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발전방향 도출

주요내용

- **경력경로 추적조사** 2000년 이후 해외취업자 심층면담을 통한 경력경로 추적 및 경력모형 설계, 경력 개발 과정에서의 정부 해외진출지원정책의 역할 평가, 건의사항 및 개선점 도출
- **해외취업지원사업 20년간 성과분석** 취업경로 설문, 인터뷰 조사결과, 시계열자료 등을 바탕으로 2000년 초부터 20여년간 해외취업지원사업의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인적자원 측면의 성과분석
- **성과분석에 따른 발전전략 제시 등** 전략 제시에 따른 추진 사업 발굴 및 중장기 발전 로드맵 제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전망: 플랫폼 노동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2020년 5월

장지연, 이호근, 조임영, 박은정, 김근주, Enzo Weber



목적

-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추정한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약 50만 명, 전체 취업자의 2% 수준임. 유럽에서도 주된 일자리가 플랫폼 노동인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2.3% 정도에 불과함(Pesole et al., 2018). 현재 관찰되는 플랫폼 노동자의 비중에 비해서 플랫폼 노동에 쏟아지는 학계와 언론, 정부 정책당국자의 관심이 높음. 이 현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아마도 플랫폼 노동이 앞으로 더욱 확산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칠 것이라는 예상에 기인함. 이 보고서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 거래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으며, 이것이 어떤 사회경제적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함.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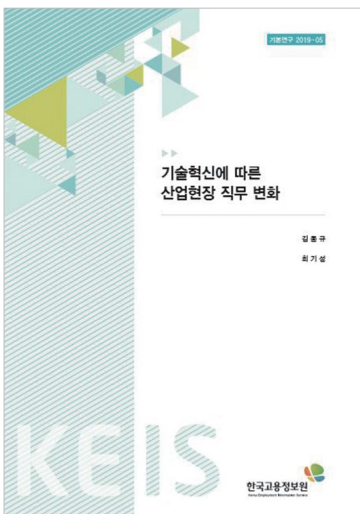
- **목차순** 제1장 서론(왜 플랫폼 노동에 주목하는가?) / 제2장 플랫폼 노동의 정의와 분류 / 제3장 플랫폼 노동의 현황과 사례 / 제4장 노동세계의 디지털화와 노동사회법적인 국내외 대응방안 / 제5장 플랫폼 노동의 입법화와 쟁점:프랑스 사례 / 제6장 미국의 AB5와 플랫폼 노동자 / 제7장 사회보험의 새로운 비전 / 제8장 결론(플랫폼 노동의 다양성과 확장성, 해외정책 사례 등)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현장 직무 변화

▶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5월

김동규, 최기성



주요내용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나타나는 산업현장의 직무 변화와 직업역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직무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직업 25개(생산관리기술자, 치과기공사 등)를 선정함. 각 직업별로 기술-산업전문가 및 현업종사자 대상 심층인터뷰, 문헌고찰 등을 실시하여 '직무변화 기술서'를 작성함. 직무변화 분석 결과, 여러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직무 변화의 특징은 ① 직무 변화의 과도기, ② 근로자의 과업 단계 축소, ③ 스마트 직무의 비중 증가, ④ 직무수준의 양극화, ⑤ 직무 범위의 확장, ⑥ 부수적 직무의 감소, 핵심 직무의 강화 등 6가지로 나타남. 직업역량 변화의 특징은 ① 소수 고숙련기술자의 역할 강화, ② 멀티태스킹 역량, 다기능 역량의 수요 증가, ③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에 대한 필요성 증가, ④ 디지털 문해력의 일반화 등 4가지로 나타남.



5.26.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모델 발굴
간담회

5.28. 이달의 기능한국인(3~6월) 시상식

6.11. 비대면 4차 산업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고시

6.13.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장 코로나19
방역 조치 점검

6.16.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최우수
공동훈련센터 시상

6.24.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2기 수료식

6.4. 2020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6.16. '19년 컨소시엄 성과평가 우수기관
상패 수여식

6월 말 예정 21년 P-TECH 신규기관
모집 설명회 개최

6.8.~6.26.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5.29.~6.5. 대학교원 공개채용

6월 중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서류 접수

5.11.~6.12. 2020학년도 1학기 실습집중주간 운영

5.11.~6.2. 총장님 전학부와 신입생 대상 환영 특강

6.3.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PC 기증식

6.17.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협약식

6.19. 공군교육사령부 업무협약식

6.19. 제1차 고용 및 고용서비스 이슈 해결방안 포럼

6.19. 2020년 상반기 직원 신규채용

직업능력심사평가원

7월 중순 '20년도 인증평가 2단계 현장평가 (신규훈련기관 대상) 운영

6.2. '20년도 하반기 운영 통합심사 신청접수 마감

6.30. 비대면 훈련 시범사업 자체조달 콘텐츠 심사 운영

6.29. 재학생 일학습병행 평과결과 발표

6.30. '20년도 수사·특별 지도·감독 실시 (약 100개소 대상)

5.13.~5.18. 직업계고 학점제 중앙 및 시도 컨설턴트 연수

5.25. 2020년도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설명회

5.26. 제73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교육형평성과 사회이동」

6.3.~6.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 '직업계고 정책 홍보관'

6.18. 직업계고 교육과정 중앙지원단 연수

6.23. 제74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코로나19 시대의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정책과 대응 방향」

6.23.~6.24. 2020년 상반기 마이스터고 담당자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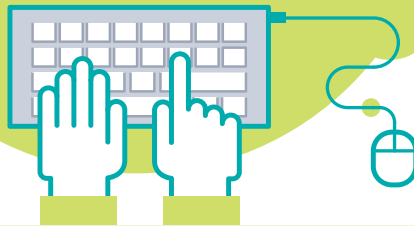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콘텐츠네트워크
홈페이지



NCS기반 훈련과정 및 과정평가형 자격 활성화를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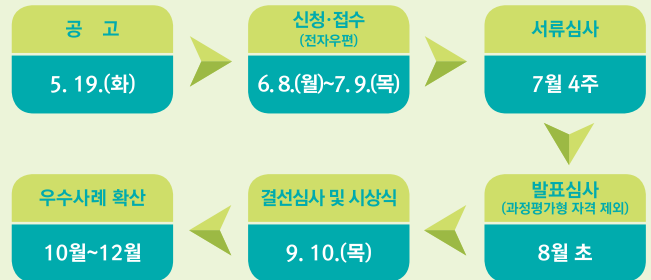
2020년 NCS기반 우수 직업교육훈련 경진대회



참가 자격

분야	훈련 과정	과정평가형 자격
신청 자격	• 접수 시작일('20.6.8.) 기준 최근 3년 이내 개발된 우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20년 현재(공고일 기준)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하는 과정 ※ '18년 또는 그 이전에 지정받아 '19년 종료 과정 포함
신청 조건	• 자체 또는 용역으로 개발되어 저작권을 보유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함	• 지정받은 교육·훈련 과정별로 신청가능
과정 요건	• (공 통) 과거 동 경진대회에서 입상(또는 인증) 받은 프로그램 등은 신청 불가 • (공 통) 동일 기관에서 각 과정(프로그램)별로 복수 신청 가능(참가 건수 제한 없음)	-
과정 요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으로서 실 훈련기간이 8시간 이상으로 1회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프로그램	-

대회 일정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 6. 8.(월) ~ 7. 9.(목), 약 1개월 간
-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접수처로 기한 내 전자우편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경진대회 참가 확인서
※ 모든 제출서류는 pdf 양식만 제출하고, 접수마감일 이후 제출서류 수정·보안 불가
 - (접수 및 문의처) 지원 분야에 따라 접수 및 문의

구 분	접수처	문의처
훈련과정 분야	best@hrdkorea.or.kr	직업능력국 능력개발기획부 ☎ 052-714-8214
과정평가형 자격 분야	hikerous@hrdkorea.or.kr	과정평가국 과정평가운영부 ☎ 052-714-8360

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 다운로드 방법

- 아래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 양식 및 작성요령 다운로드
-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모집중인 사업
 - HRD콘텐츠네트워크(www.hrdbank.net) → 공지사항
 - NCS홈페이지(www.ncs.go.kr) → Q&A센터 → 공지사항
 - CQ-Net홈페이지(www.c-q-net.or.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시상

- (훈련과정 분야) 7개 포상, (과정평가형 자격 분야) 8개 포상

- (부상품) 대상 및 금상 수상기관 담당자 해외연수 포상 등

(단위: 만원)

시상	훈격	계		우수훈련과정		과정평가형자격		
		포상금	포상수	포상금	포상수	포상금	포상수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200	3	600	1	200	2	400
금상	고용노동부장관상	150	4	600	2	300	2	300
은상	공단 이사장상	100	4	400	2	200	2	200
동상	공단 이사장상	50	4	200	2	100	2	100
계		15	1,800	7	800	8	1,000	

※ 참가기관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 부문별 포상 수 변동 가능

※ 단, 담당자 해외연수는 코로나19 진행 경과에 따라 연수 여부, 시기, 장소 등 추후 결정